

8 기획-학생설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내부 심의과정 하술 특정 전공 쏠림 현상도 대책 필요

박소는 기자 unao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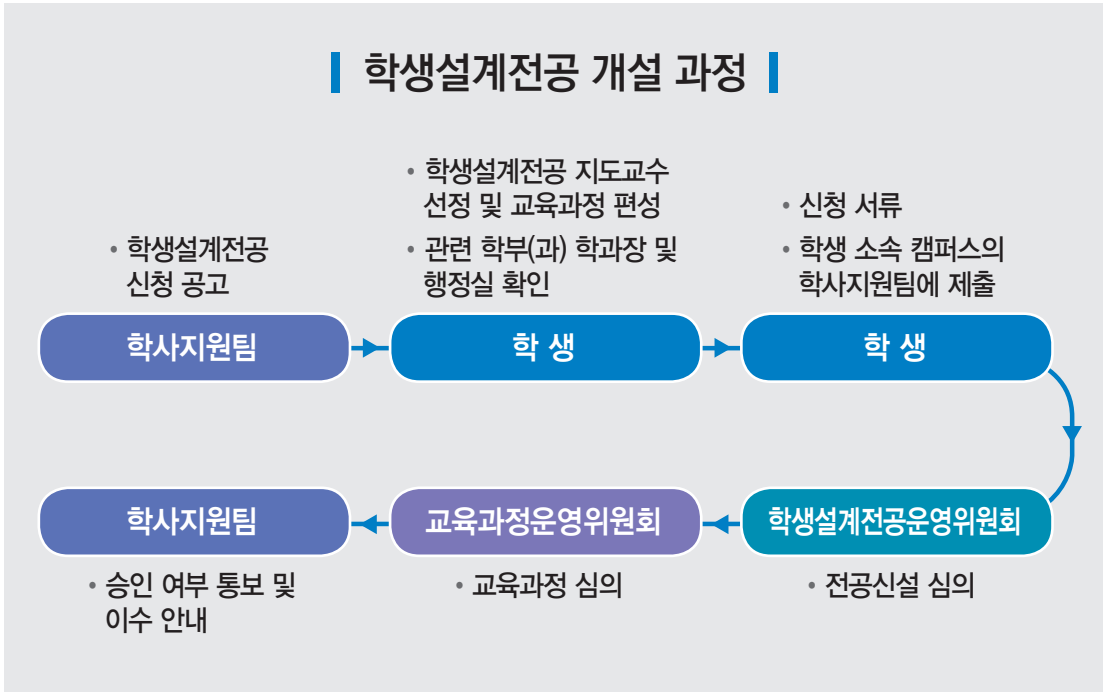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부터 복수전공 유형 중 학생설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설계전공은 특정 영역에 갇힌 제한을 풀고 다양한 학문에 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신문은 두 학기가량 진행된 학생설계전공 현황을 경영대학(경영대) 사례를 통해 점검해봤다.

학생설계전공은 지난 학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련 기사: 학생 스스로 전공 설계하는 학생설계전공/대학주보 온라인 (2022.06.10.))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은 “기존 학과(전공) 교육과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생 스스로 전공과 교과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타전공 설계·심의 과정 해당 전공 교수 부재 타당성 및 신빙성 의문

지난 학기 학생설계전공 실시 후 일부 학과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제대로 지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학기 경영학사 학위의 전공을 승인받은 타 학과 학생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설계 시 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인 타 학과 교수로, 경영학 전공 교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내 강의의 절반이 경영학 전공 과목이었으나, 교육과정 설계에는 경영학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내부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 중에서도 경영학 담당 교·강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심의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 승인을 위해 두 번의 내부 심의가 진행됐지만, 막상 학위를 전공한 전문가가 판단 과정에 부재했던 것이다. 이에 관해 경영대 경영학과 양대규 학과장은 “학부생이 타 학위의 전공과목을 구성해서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것의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며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모집 진행 과정

“그마저도 지도교수는 경영학 교수가 아니었고, 심의 과정에도 경영학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학생설계전공 모집 후, 신규 학사제도 안내와 학사 업무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며 이번 학기 모집에는 일부 변동사항이 생겼다. 먼저 관련 학부(과) 학과장 및 행정실의 확인 절차 등이 기존 심의 과정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은 지도교수뿐 아니라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 내 포함되는 모든 학부(과)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학사지원팀은 이 절차가 “관련 학부(과)와 사전 공유하고,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관련 학부(과) 확인 절차 과정에서는 선수 및 후수 과목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도 진행된다.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사지원팀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교과목 편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수를 학생이 직접 섭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만큼 학생이 원하는 교수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목 폐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할 때 지도교수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학사지원팀이 관련 학부(과) 내 교수를 추천해줄 수 있다.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모집에서 경영대의 경우 학점 제한도 별도로 마련되기도 했다. 지난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당시의 학점 제한이었던 ‘전체 평점평균 3.3학점 이상’이 전과, 복수전공 등 타 학사제도로 경영대에 유입된 학생의 학점 평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경영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2023학년도 1학기 모집부터 경영대 소속 학과에 한정해 ▲신청 당시 선수과목 3개(회계원리, 경영통계학, 경제학원론)를 이수해 각각 A 학점 이상 취득 ▲직전 학기까지 전체 평점평균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경영학과로 전과한 A 씨는 3.3학점을 기준으로 진행됐던 지난 학생설계전공에 대해 “전과를 위해 성적관리나 선수강 과목 이수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했던 입장에서 3.3학점의 기준에서 학생설계전공으로 경영학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불공정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학사제도가 전공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을 보다 쉽게 전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했던 것 같다는 게 A 씨 입장이다. 다만 A 씨는 “이번 모집에서 경영대 소속 학과에 한정해

강화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학생설계전공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가능성 있으나 그럼에도 어려움 존재 인력 및 지원책도 고려해야

지난 학기 최초 모집 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짚어보아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 먼저 향후 심의 과정에 경영대 관계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력 문제는 남게 된다. 양 학과장은 “기존 경영대 행정실과 관계자 모두 인원이 많지가 않다”며 “만일 심의 과정에 관련 학과 관계자가 참여한다고 하면 업무 부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영학과와 경영대, 복수전공, 전과 등에 대한 수요와 유입도 많다. 직전 학기 기준 기존 정원이 221명이었던 경영학과는 ▲복수전공 인원 34명 ▲전과 인원 16명 ▲정원의 내·외국인 인원 86명이 유입돼 기존 정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추가로 수용했다. 여기에 유입되지 않은 지원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지원자 평가와 유입 인원 관리 차원에서 물리적 자원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사지원팀은 “현재 다전공과 융합전공의 경우 자율운영예산 배정 시 산출식에 의거해 교육 수월성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 “학생설계전공도 다전공제도로 해당 사업비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학과(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경청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장기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 학과장은 “학생설계전공 개설 당시 사전에 들은 바가 없었고 학교 측은 행정실 실무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며 “학생설계전공의 최초 실시 이후에야 개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모집 이후 간담회에서 해당 사항을 비롯해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도나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측이 각 단과대학의 목소리를 잘 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새로운 학사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A 씨는 “경영학 내에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며 “기존 경영학 전공생들은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전공필수과목이 있는데, 학생설계전공은 그러한 기준 없이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맞으나, 보다 쉽게 학위 수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타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학사제도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과 내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A 씨는 “경영대로 학적변경을 원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기존의 경영대 학생들이 이행하던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영대는 ▲성적비율 ▲전공 수업 계절학기 개설 여부 ▲4학년에 우선적인 정원 편성에서 비롯된 수강신청 경쟁률 ▲강의실 부족 등 이미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A 씨는 “학생설계전공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학사지원팀은 “특정 학부(과) 또는 교과목에 집중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단과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선발 결과는 다가오는 9일 학생 개별 통보 방식으로 발표된다.